

# 한강버스 내달부터 다시 뜬다 항로이탈 방지 등 안전 '풀장착'

### 내달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 수심조사, 부표 개선 등 안전 확보 동·서부 노선별 왕복 16항차 운항



한강버스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 마곡 방면으로 운항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분(마곡~여의도 구간)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하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 개선을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구간 부표를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4m → 4.5m)로 교체해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 조치를 완료

했으며, 잔여 24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특히, 저수로 사석 및 식생매트 일부 유실, 미화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 규정상 보완이 필요한 28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후 운항 재개한다.

운항 노선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중심 운항체계로 노선이 개편됨에 따라 여의도에서 잠실방향과 마곡방향으로 하루 32항차를 운항하면서 탑승객 수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시는 노선 분할로 인해 여의도에서 동·서부 노선 간 환승하는 경우 환승 비용을 면제하고, 승선객이 여의도 선착장에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선착장 주변 한강공원을 활용해 승객 대기 및 편의 공간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월 1일부터 동·서부 각 노선별 왕복 16항차 운항하며, 항차별 운항 간격은 약 1시간이다. 동부(잠실~여의도) 노선은 잠실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 운항 시작 후 마지막 배가 저녁 8시 27분에 도착하며, 서부(마곡~여의도) 노선은 마곡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 20분에 운항 시작 후 마지막 배가 저녁 7시 32분 도착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의대에도 변진 '사탐런'... 계열간 경계 완화

### 2026 정시 수험생 데이터 분석 의대 9.3%, 한의대 74.8% 사탐 응시

2026학년도 정시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 제한을 두지 않은 의·약학계열 모집단위에서 사회탐구(사탐) 응시자의 실제 지원 비율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 조합은 통상 인문계열 수험생이 선택하는 시험 구성이다.

25일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메디컬 계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의대의 경우 탐구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9.3%가 사탐 응시자로 집계됐다. 미적분·기하와 과탐 응시자가 중심이었던 기존 의대 지원 구조를 고려하면, 사탐 응시자 비율이 10%에 근접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다.

이는 자연계열 수험생 일부가 학습 부담 완화나 점수 전략을 고려해 사탐을 선택한 이른바 '사탐런' 현상과 함께, 인문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통합형 수능 체제를 활용해 의대에 도전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한의대에서 더욱 두

렷하게 나타났다. 선택과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한의대 지원자 중 74.8%가 사탐 응시자로 집계돼, 사실상 지원자의 다수가 사탐 선택자인 구조를 보였다. 수의대에서도 사탐 응시자 비율이 40.5%, 약대는 23.8%로 나타나, 자연계열 학과라는 인식이 강했던 전공분야에서도 인문계열 성향 수험생들의 진입이 상당 수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데이터는 학습 효율성을 고려해 사탐을 선택한 전략적 응시자와, 메디컬 계열로 진로를 확장한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이 결합되며 나타난 결과"라며 "과거에는 인문계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주로 경영·경제 계열로 향했다면, 이제는 문호가 개방된 메디컬 계열을 실질적인 합격 목표로 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 소장은 "대학별 가산점 구조와 수능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합격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결과는 메디컬 계열 내 선택과목 전략이 분화되고, 계열 간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올해 장애인 일자리 1만개 만든다

### 예산 2353억 투입... 역대 최대규모

경기도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53억 원을 투입해 1만 115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 4개 과제, 29개 세부 사업으로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예산 240억 원(11.1%), 일자리 952개(10.3%)를 늘려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기반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계획에 따르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기회수당 지원을 통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택시운전원 양성,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자 양성 등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 고용률 3.8%보다 높은 5%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인 청년인턴제와 장애인 생산품 구입 연계 고용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화한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구로·불광 등 6곳,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추가 선정 투기방지대책 마련, 토허제 적용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는 총 15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 일대 등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봉동 66-15, 불광동 442/445번지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옥천동 123-2번지와 구의동 46번지 일대는 주민 70%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며,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도 재개발 과정 중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투기방지 대책을 적용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조기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관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을 시행한다. /이현진 기자

# 학점은행·독학학위제로 3.9만명 학위취득

### 누적학위 128만명... 교육제도 안착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올해 3만8944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교 밖 학습과 국가시험을 통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성인 학습자들이 대거 배출되며, 평생학습 기반 고등교육 체제가 다시 한 번 규모와 지속성을 입증했다.

25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총 3만8944명이다. 제도별로는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만8473명, 독학학위제 학사 471명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진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

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다. 현재 학사 120개, 전문학사 111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에게 대안적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11개 학사 전공이 마련돼 있다.

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누적 학위 취득자는 약 128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점은행제는 125만7643명, 독학학위제는 2만4832명으로, 평생학습 기반 고등교육이 제도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무 / 07:08 | 해짐 / 18:22

2월 26일 (木) 음력 : 1월 10일

수도권 날씨 2 ~ 1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15, 동두천 -2/15, 가평 -2/16, 파주 -3/14, 서울 2/15, 양평 -2/16, 인천 2/10, 수원 1/14, 용인 1/14, 평택 -1/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메트로 한줄뉴스



▲AI 공포에 식은 美 IPO 시장... "빅테크만 살아남나" /사진 뉴스1

▲"30분 비행에 14만3000원"... 中 춘제 '헬기' 예약 1.5배 급증

▲중기업, 보너스 87억원 현금으로 뿌렸다... "손이 모자랄 지경"

▲다다카이치, 의원 '카탈로그 선물' 논란에 "정당교부금 안 썼다"

▲로레알·다이슨도 IEEPA 환급 소송... "美 관세 돌려달라"

▲영국 방문 예정이라면 ETA 사전 신청 꼭!... 韓 포함 85개국 의무화